월요광장

역사를 위한 변명? 변명을 위한 역사?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아빠, 도대체 역사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린 아들이 역사학자인 자신에게 던진 질문으로 마르크 블로크(1886~1944)는 자신의 저서 '역사를 위한 변명'의 서문을 시작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탁월하면서 간결하고 정직한 이 질문은 결국 역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한다.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역사와 지리학을 전공했던 마르크 블르크는 1차대전에 참전한 후, 스트라스부르 대학을 거쳐 소르본느 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다. 후에 '아날'학파로 명명되는 역사학의 새로운 방법과 분야를 창시하기도 한 마르크 블르크는 2차대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참전하여 파리 방어 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파리 방어 작전에 참여했던 당시의 일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날은 바로 1940년 6월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던 날이었다. 우리 사령부가 군대를 잃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노르망디 지방의 정원에서 우리는 이 참담한 패배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역사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해야 될까?'하고 중얼거렸다."('역사를 위한 변명' 서문)

이 두 가지 의문, 즉 어린이의 호기심과 어른의 고뇌에 대답하기 위해 마르크 블르크는 나치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복무하면서 한편으로는 '역사를 위한 변명'의 저술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저서를 완결하지 못한 채 나치에 붙잡혀 1944년 총살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이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간 속의 인간들에 관한 학문'이며, '더 나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며, 따라서 그것은 움직이는 그 무엇'이라고 강조한다.

궁형을 당한 치욕으로 땀이 등줄기를 흘러 옷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마천은 '사기'의 「백이열전」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도척은 부유하게 살면서 장수를 누렸지만, 도의와 절개를 지켰던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은 사실을 들어 과연 '천도란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가는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부정과 회의를 거치면서 '역사'에 대해 고민했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역사를 이용하거나 장악하려 하지 않았던 이들의 작업은 인류의 자산으로 승화되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요즘 말로 하면 '국정교과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유교적 입장에서 서술된 시각이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만일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역으로 우리 역사는 매우 빈약해졌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이처럼 역사는 단일한 입장과 해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풍요롭게 읽혀질 때, 그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파리를 점령당했을 때 마르크 블르크가 던졌던 질문, '역사가 우리를 배반했을까?'는 우리 선조들도 떠올렸던 질문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논밭을 빼앗아 가버렸고, 광복이 되어 기뻐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더니 남북이 나뉘어 버리는 일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런 의문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를 위한 변명'이 우리에게도 필요할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했던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렇지만 그 때는 어쩔 수 없었다든가, 차악의 길이라도 선택했어야 했다는 '변명을 위한' 역사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학자를 배제한 '역사 교과서'가 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큰 까닭도 여기에 있다.

법조칼럼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김 원 지
광주지검 검사

1년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다. 짧은 유학생활 동안 아름다운 날씨와 매력적인 건축물과 함께 항상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였다.

물론 교통 환경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점은 감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바르셀로나 시내에서는 다른 대도시와 달리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관광지라도 유모차와 휠체어를 끌기 편하게 인도와 횡단보도가 마련되어 있고, 모든 버스는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차고가 낮고 문의 턱을 낮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계속해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며, 시내의 통행 속도도 낮춰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측면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었다. 택시나 버스를 타도 주택이나 학교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였다. 일반 운전자들도 보행자에게 우선 양보해주고, 교차로나 사거리에서 항상 상대차를 배려하는 운전을 해주었다. 웃으면서 양보하는 여유로움 속에 담겨 있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우연인지 모르지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역점으로 진행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의식을 높이고 준법문화 확립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그 일환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교통분야에 접목해 '배려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시민 문화운동으로서 확산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한 1000만명 동영상 릴레이 캠페인, 캠페인 송 제작과 홍보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포식 이후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이 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다행스런 마음이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교통 환경 정비보다 우선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배려정신이야말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신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에 자연스레 전달되어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에서 시작된 배려의 마음이 우리 사회 모두를 마법처럼 변화시킬 것이라 믿는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올 가을 예향과 민주의 도시 광주가 이번에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의 발원지로서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즐겁고 행복한 수확을 기대해 본다.

기 고

광주, 엘리트 체육 도약 기회다

유 재 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올 해, 2015년은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엘리트체육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확실하게 보답해 드릴 수 있었던 한 해가 된 것 같다.

지난 7월 개최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총 108개의 메달을 획득(금 47·은 32·동 29)하면서 대회 사상 첫 종합 1위를 차지하여, 대회운영의 성공은 물론 훌륭한 경기장 시설과 수준 높은 관람문화로 세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 광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10월 강원도에서 열린 '제 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광주가 총 162개의 메달을 획득(금 46·은 48·동 68)하여, 원정 18년 만에 종합순위 11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광주시청 소속 육상 4관왕 김국영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히는 영광을 얻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체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시민들의 격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체육계 내에서는 엘리트체육의 성적이 투입예산과 정비례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 대표선수들은 오직 우리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훈련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왔다.

우리 시체육회에서도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가맹경기단체,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선수 육성, 학교팀 지원, 단체종목 집중 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올해 전국체전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렵게 달성한 금년 전국체전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지역 엘리트체육 도약의 계기로 만들고 민선 6기 청년일자리창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선수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 육성 및 영입은 물론이고, 다소 경기력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유망선수들을 차기 우수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체육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체육회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중인 스포츠과학센터와 체육지도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유망선수들을 집중육성한다면 1~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둘째, 우수선수 은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육지도자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박태환, 김연아, 손연재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된 것은 초등학교때 부터 국가대표로 성장할 때까지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함께해 온 훌륭한 지도자가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엘리트 선수들에게 은퇴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성기에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충분히 전수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육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역 우량 기업과 공기업들이 힘을 보태서 실업팀을 창단해야 한다. 광주는 타 시도에 비해 실업팀이 부족하여 학교 졸업후 실업팀으로 연계되는 취업 기회가 부족하여 어렵게 키워온 우수한 학생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와 체육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업팀 창단이 절실하다.

광주체육 최고의 해인 2015년의 영광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체육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4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2015년의 영광이 광주시민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곤충산업,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인간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방제대상'이었던 곤충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만큼 곤충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며, 화분매개용, 애완용을 넘어 식용과 사료용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곤충은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탄수화물과 지방도 풍부하다. 철과 마그네슘 등 무기질은 물론, 식이섬유까지 함유하고 있어 육류보다 영양성분이 더 뛰어나다. 또 가축에 비해 사육 면적이 적은데다,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알을 낳는 등 생산성도 높다. 농산물 제배 면적보다도 적어 사료 대체원으로도 이용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에 곤충체험 프로그램 등 6차 산업화도 곤충시장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나비와 반딧불이 등 행사에 쓰이는 곤충 수요가 늘어나고 심리치료 등 애완용 곤충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왕귀뚜라미를 키우게 한 결과 뇌 활성도와 수행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곤충 생산량은 수요물량 확보조차 어렵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곤충을 사료로 만드는 기술을 포함한 곤충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와 전시체험관 건립 등 곤충이 신성장 미래농업으로 떠오르는 만큼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김한규·농협안성교육원 교수

社 說

산업화·비즈니스 가능성 확인한 두 박람회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가 대박이 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두 행사는 지역 특화자원을 산업화로 연결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꾀함으로써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

어제 막을 내린 국제농업박람회에는 73만 명이 다녀갔고, 현장 판매나 구매 약정된 농산물도 1728억 원어치나 된 것으로 추계됐다. 적극적인 비즈니스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달 31일 폐막한 군(郡) 단위 최초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나무의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하겠다. 주방용품은 물론 건축 자재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산업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두 박람회는 산업화에 뒤진 광주·전남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물류 등 기반시설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 유치가 미진한 게 이 지역의 현실이지만 비교우위 자원을 잘 이용해 지역 활력소로 삼는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두 박람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인 연계 전략 구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양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공동 운행하고, 한쪽 행사 입장권을 가져 오면 다른 한 쪽의 입장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상승효과를 노렸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때 참조할 만한 전략이다.

아무튼 이번 두 박람회의 성공 개최는 앞으로 광주·전남만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용도를 높여 산업화를 시도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자체끼리 잘 협력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암서 AI 잇따라 발생 '청정 전남' 멀어지나

지난 18일 AI가 발생한 영암의 한 오리 농가 반경 3㎞ 내에 있는 다른 오리 농가 4곳에서 나온 AI 의심축도 모두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애초 AI가 발생한 오리 사육 농가 14곳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개 농가에서 추가로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31일 2개 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어제 나머지 2개 농가도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오리를 매몰 처분하고,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를 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 다시 AI가 발생하자 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지난 9월 말까지 7건의 AI가 발생한 데 이어 특별방역에도 불구하고 10월에도 AI가 발생하면서 'AI 청정국' 지위 회복은 더 멀어졌다. 고병원성 AI는 최근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과 8월을 제외하곤 매달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AI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농가의 후진적 시설을 수년째 방치하다가 AI가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정비에 나서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 도내 120농가에서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689만3천 마리, 이에 따른 보상금도 644억 원이나 됐다. 전남도와 방역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확산 방지 활동이 있어야겠다. 농가의 적극적인 자체 방역을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전라도 1000년

전라도(全羅道)라는 명칭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머리글자를 합해 만든 지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전라도는 애초 1000년 전인 고려 헌종 9년(1018년)에 강남도(전주와 그 인근)와 해양도(나주와 그 인근)를 합해 만든 전라주도(全羅州道)에서 비롯됐다.

무려 1000년이나 된 이름으로 조선팔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전라도에 이어 경상도(1314년), 충청도(1356), 강원도(1395), 평안도(1413), 경기도(1414), 황해도(1417), 함경도(1509) 등의 이름이 생겨났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전남도, 광남도로 고친 적이 있다. 1985년 고종 32년에 23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전라도는 전주부·남원부·나주부·제주부 등 4개 부로 나뉘었다. 이어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세분됐다. 제주는 항상 전라도 혹은 전라남도 관할 내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는 여러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가 지금도 광주에 있고, 법원의 경우도 광주고등법원 관할 아래 있다.

1914년 행정개편으로 전라도의 56개 군이 전라북도 1부 14군, 전라남도 1부 22군으로 분류·재편됐다. 1946년 제주도가 도로 승격돼 전라남도에서 분리됐다. 1986년엔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에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돼 전라도는 1개 광역시와 2개 도로 나뉘었다.

전라도를 호남 지방이라 이르는 것은 호강(湖江, 현재 금강) 남쪽이라는 뜻이다. 금강 하류는 오래전부터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이루어 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오는 2017년 전라도 개도 1000주년을 앞두고 '전라도 개도 천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조만간 열어 전라도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한다. 2017년에 대선이 실시되고, 201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전라도가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복안인 것 같다.

기왕에 전라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광주·전남과도 함께 손잡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